

인도네시아 2022: 재도약을 위한 첫걸음*

정 정 훈**

국문초록

본 논문은 2022년 인도네시아의 정치, 경제, 외교 분야의 주요 이슈를 점검하고, 그것이 인도네시아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코위 대통령은 코로나19로 발생한 전염병 상황에 대한 미숙한 대처로 여러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국제외교 분야의 성과와 경제 상황이 나아지면서 높은 지지율로 국정을 이끌고 있다. 이러한 높은 지지율은 2024년 대선, 총선,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인도네시아 정치에서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2022년 인도네시아 경제는 루피아 환율의 하락과 국제 경제의 불안으로 변동성이 큰 한해였다. 하지만 2021년 2분기 경제성장률이 상승으로 돌아선 이후, 2022년은 더욱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기름과 국제곡물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높은 수준의 물가가 여전히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지만, 팜유, 니켈, 구리, 주석 등 원자재 가격 상승과 국내 소비시장의 활성화가 경제성장을 추동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G20 발리 정상회의는 인도네시아의 외교력이 전 세계에 알려진 계기가 되었다. 조코위는 2022년 15개국을 방문하였고, 코로나19 팬데믹, 공급망 혼란과 인플레이션,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변화 등에 관한 주제로 양자와 다자 회담을 진행했다. 수교 50주년을 앞둔 2022년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CEPA 협정의 발효와 기술집약적 첨단산업 분야기업이 인도네시아에 직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C2A01080959)

**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접 진출하는 성과가 있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2022년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외교적 수사에 머물지 않고, 민간 부문의 활발한 교류를 통한 상호 이익을 추구했던 해로 기억될 것이다.

주제어: 인도네시아, 코로나19, CEPA 협정, 옴니버스법, 루피아 환율, G20 발리 정상회의

I. 들어가며

인도네시아의 2022년은 국내외적으로 어떻게 기억될까? 집권 2기 3년차에 접어든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이하 조코위) 대통령은 포스트 팬데믹 시대를 맞이하여 어떤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 문제에 직면했고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는가?

정치적으로는 헌정사상 최초의 동시 선거를 준비하는 여러 후보들이 출마를 준비 중이며, 신문과 방송에서 주요 후보들의 지지율 변화나 각종 언사가 보도되고 있다. 재선 대통령인 조코위는 더 이상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지만, 그의 높은 지지율은 여전히 차기 대선에서 주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더욱이 원내 정당 중 투쟁민주당(PDI-P)을 제외하고 여타 정당들은 정당 간 연합 이외에 단독으로 대선후보를 내세울 수 없다. 또한 조코위는 지난 선거의 상대였던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이하 프라보워)를 공개 지지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정치적 후계자로 평가받는 간자르 프라노워(Ganjar Pranowo, 이하 간자르) 중부자바 주지사에 대한 간접적 지지를 표명하였다. 정치적 영향력이 조금씩 쇠퇴하는 기존의 관행과 달리 조코위는 여전히 대선을 비롯한 여러 정치 이슈의 중심에 놓여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제는 2021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반등했던 여러

경제 지표들이 더욱 높은 수준에 달하면서 원자재를 보유한 국가의 힘을 보여주었다. 아시아의 여타 국가와 비슷하게 인도네시아 역시 미국 달러화의 상승, 금융시장의 부채 증가와 인플레이션 그리고 채권 수익률 상승 등 경제적 변동성이 큰 한 해였다. 그럼에도 인도네시아의 경제성장률은 2021년 반등했던 3.69% 보다 더욱 높은 수치인 5.31%를 기록했다. 기름과 국제곡물 가격의 상승 그리고 루피아가치의 하락으로 높은 물가가 지속되었지만, 팜유, 니켈, 구리, 주석 등 원자재에 대한 수출 제한과 높은 가격은 대외 수출 실적의 호재로 나타났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이하 우크라이나 전쟁)과 ‘2022 G20 발리 정상회의(2022 G20 Bali summit: 이하 G20 발리 정상회의)’는 2022년 국제외교 분야의 주요한 의제이자 행사였다. 2022년 조코위 외교는 민감한 국제문제에 간여하고 조정하는 참여자로 기억될 것이다. 아세안-미국 특별회의 참석을 위해 경유지로 네덜란드를 처음 방문한 5월 10일 이후로 15개국을 방문하였다. 그의 외교적 행위의 절정은 발리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였고, 회의의 원만한 진행과 당초 발표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정상선언문(Leader’ Declaration) 채택이 이루어졌다.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관계는 2023년을 기점으로 양국 수교 50주년을 맞이한다. 양국 관계를 연결하는 주요 분야는 여전히 경제이다.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경제 분야에서 주요 성과는 양국의 자유무역 협정인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IK-CEPA, Perjanjian Kemitraan Ekonomi Komprehensif Indonesia-Korea: 이하 CEPA)’에 대한 양국 국회 승인과 보다 활발해진 국내 대기업의 인도네시아 현지 진출이다. CEPA 협정 발효는 향후 양국의 상품시장 개방 수준의 확대와 국내 기업의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에 보다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2022년 한 해 동안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난 주요 이슈

를 정치, 경제, 외교 분야로 나누어 설명한다. 또한 한국과 인도네시아 관계에서 일어난 이슈의 분석과 그것의 의의를 검토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코로나19 이후의 상황과 2024년 동시 선거를 둘러싼 정치인과 정당의 관계 그리고 조코위의 정치적 활동에 대한 평가를 검토한다. 3장에서는 경제성장률, 환율추이, 수출현황 등 거시경제 지표로 2022년 경제 상황을 조망한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급격하게 성장한 인도네시아 디지털 경제의 현황에 대해 분석한다. 4장에서는 국제사회의 주역으로 떠오른 조코위와 그의 외교적 활동을 검토한 후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관계를 고찰한다. 5장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정치, 경제, 외교 분야의 내용을 바탕으로 2022년 인도네시아 사회와 앞으로 미래에 대해 전망한다.

II. 2022년 인도네시아 정치

1.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정치적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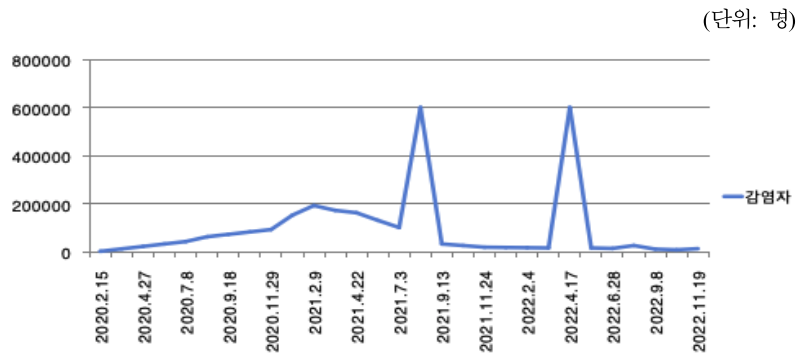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대응은 지난 2년간 여러 부침이 있었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렸던 2020년 초반 조코위 대통령은 전염병이 가진 위협을 과소평가 했기에, 이에 대한 단편적이며 혼란스러운 대응으로 일관하였다(Almuttaqi 2020; Fealy 2020; Mietzner 2020). 아시아의 이웃 국가들이 국경 폐쇄, 검역 강화 등 전염병 예방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할 때 인도네시아는 열대 기후, 말레이인의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 주장, 자체 예방 조치에 대한 자화자찬 등의 이유를 제시하며 수많은 감염자와 사망자를 양산하였다(Mietzner 2020).

이는 조코위 2기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과 관련된다. 조코위는 2019년 대선에서 승리함으로써 인도네시아 역사상 두 번째로 재임

에 성공한 대통령이 되었고, 그가 이끄는 내각의 명칭을 ‘번영하는 인도네시아(Kabinet Indonesia Maju)’라고 명명하였다. 또한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여러 개의 법률 조항을 한 번에 개정할 수 있는 일명 ‘옴니버스 법(Omnibus Law)’인 ‘고용창출법(UU Cipta Lapangan Kerja: 이하 옴니버스 법)’을 통해 투자환경 개선을 시도하였다(이지혁 2020: 70).

조코위 정부의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조코위는 2기 정부의 성공을 경제성장에서 찾았기에 심각한 경제적 결과를 초래하거나 사회적 불안을 유발할 수 있는 봉쇄조치(lockdown)를 적극적으로 실행하지 않았다(Fealy 2020: 304). 물론 2020년 4월 4일 자카르타를 시작으로 공공기관을 폐쇄하거나 이동시간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대규모사회제한조치(Pembatasan Sosial Berskala Besar: 이하 PSBB)’가 시행되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조치 역시 경제 활동에 대한 위축을 이유로 정책의 대상과 범위를 번복함으로써 여러 비난을 받았다(신재혁·박희경 2021: 5).

코로나19의 초기 방역 실패로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국가 중 가장 많은 감염자와 사망자를 기록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감염자는 6,723,812명이며, 사망자는 160,694명이다(2023년 1월 10일 기준. Worldometer). 2020년 1월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던 바이러스가 알파(B.1.1.7), 베타(B.1.351), 감마(P.1) 등으로 변화할 때마다 감염자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2021년 8월과 2022년 4월 감염자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2022년 7월 이후 신규 감염자는 7,000여명 전후로 소강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림 1> 인도네시아 코로나19 감염자 추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인도네시아는 코로나19 이후인 ‘새로운 일상(Adaptasi Kebiasaan Baru: AKB)’인 ‘뉴 노멀(New Normal)’을 준비하고 있다. 조코위 정부는 2022년 루피아 가치 하락, 미국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 이하 연준)의 금리인상, 인플레이션 등 국제 금융 여건이 불안정했지만, 내수 시장의 회복과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인도네시아 경제는 안정을 되찾았다.

조코위 대통령의 국정 만족도는 코로나19 방역 실패, 식용유 가격의 상승과 같은 급격한 생활 물가의 상승, 물가를 낮추기 위한 수출 금지 조치의 실패 등에 대한 비판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특히 휘발유 가격 30% 인상에 항의하는 시위가 9월 내내 의회와 정부 청사 인근에서 지속되었다. 인도네시아 전국노동조합연맹(KSPSI) 노동자와 대학생이 시위의 중심에 있었고, 자카르타를 비롯하여 수라바야, 마카사르, 아제, 족자카르타 등 전국 곳곳에서 시위가 일어났다.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대규모 시위와 10월 1일 말랑 칸주루한 참사(Bencana Stadium Kanjuruhan)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

하지만 G20 의장국 역할 수행을 통한 국제외교 분야의 성과와 접

진적으로 경제가 회복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로 국정을 이끌고 있다. 퇴임을 앞둔 조코위의 높은 지지율은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도 그의 영향력이 여전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차기 대통령 선출시 조코위의 나이가 62세에 불과하며, 더욱이 야당 유력인사들의 입각으로 인하여 야당이 사라져가는 기이한 정치 구조 역시 조코위의 정치적 자양분이 된다.

이러한 정치 상황을 반영하는 조사 결과도 발표되었다. 콤파스 연구센터(Litbang Kompas)가 9월 24일부터 10월 7일까지 34개주 1,200명 응답자와 일대일 면접 조사의 결과는 조코위의 영향력을 확인시켜 준다. 차기 대선 후보의 선출에 있어 조코위의 영향력을 묻는 질문에 17.1% 응답자가 조코위의 ‘의견대로 지지(Ya, akan memilih)’를 할 것으로 응답했으며,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다(Ya, memikirkan mempertimbangkan)’라는 의견은 38%에 달하였다. ‘그의 의견을 따르지 않을 것(Tidak akan memilih)’이라는 응답은 29.4%, ‘잘 알지 못하다(Tidak Tahu)’라는 의견은 15.5%로 조사되었다.

결국 전체 응답자의 55.1%가 차기 대선 과정에서 조코위의 영향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온 것이다(Kompas 2022a). 정치적으로 조코위의 높은 인기가 반영되면서 헌법 수정을 통해 그가 3선에 도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거나(이지혁 2022: 163), 의회에서 2024년 선거 연기설이 팽배해 지기도 하였다. 하지만 조코위는 공식적으로 2024년에 진행 예정인 선거일을 확정하였다. 또한 G20 관련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와 2022년 11월 12일 인터뷰를 통해 대통령 퇴임 이후 평범한 사람이 되어(sebagai rakyat biasa) 고향인 솔로(Solo)로 돌아갈 것이며 향후 환경 분야에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한다.

공식 선거일이 확정된 만큼 대선 출마를 희망한 후보들의 공식 출마 선언과 정당 연합 선언이 일어났고, 여론조사 기관들은 후보별

지지율 공표를 통해 그 열기를 더하고 있다. 폴트래킹 인도네시아 (Poltracking Indonesia)가 2022년 8월 31일 발표한 ‘2024년 대통령 후보별 당선 가능성’을 기초로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3인의 후보는 다음과 같다.

(단위: 퍼센트)

후보자 성명	지지율 (Kompas 2022.8.31)	지지율 (detik 2022.10.17.)
간자르 프라노워	26.6	20.5
프라보워 수비안토	19.7	30.7
아니스 바스웨단	17.7	17.6
아구스 하리무르띠 유투요노	4.7	5.2
리드완 카밀	3.9	8.2
에릭 토히르	2.8	4.8
산디아가 사라후딘 우노	2.4	2.3
푸안 마하라니	2.2	2
코피파 인다르 파라완사	2.2	-
아이르랑가 하르타르토	1.7	2.1
응답 거부/지지자 없음	7.2/8.9	-/3.7

<그림 2> 인도네시아 2024년 대선 후보별 당선 가능성
(출처: Kompas 2022b, Hutajulu 2022)

간자르가 26.6%, 프라보워가 19.7% 그리고 자카르타 주지사였던 아니스 바스웨단(Anies Baswedan: 이하 아니스)이 17.7%의 지지율을 얻고 있다(Kompas 2022b). 이후의 10월 17일 인도네시아 폴리스테이션(Indonesia Polling Station: IPS)의 조사결과는 프라보워가 30.7%, 간자르 20.5%, 아니스가 17.6%로 조사되었다(Hutajulu 2022).

2. 현정 사상 최초의 동시 선거를 기다리며

인도네시아의 정당과 정치인에게 2024년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

한 한해가 될 것이다. 대통령 선거, 의회 선거 그리고 지방선거가 헌정 사상 최초로 같은 해에 치러지기 때문이다. 특히 대통령과 부통령 선거(pemilihan presiden dan wakil presiden), 국회의원 선거(pemilihan anggota DPR RI), 지역대표 선거(pemilihan anggota DPD RI), 지방의회 선거(pemilihan anggota DPRD)는 2024년 2월 14일에 모든 투표가 진행되기에 정치 환경의 역동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인도네시아 선거법에서 대통령 후보자는 이전 총선에서 국회의석의 20% 또는 득표수 25% 이상의 정당과 정당연합만이 출마할 수 있다. 의회선거와 지방선거 역시 각 당의 대선 후보가 누구냐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기에, 선거 시기가 다가오면 대선 후보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방식의 정단 간 연합이 일어난다.

현재 원내 1당이자 조코위의 소속 정당인 투쟁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하원 의석수의 20% 이상을 확보하여 단독으로 후보자를 내세울 수 있다. 당내 비주류였던 조코위의 대중적 인기에 힘입어 두 번의 대선 승리를 쟁취했던 투쟁민주당은 세 번째 대선 승리를 기대한다. 물론 투쟁민주당은 전 대통령이자 당 총재인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Megawati Soekarnoputri: 이하 메가와티)의 영향력에 따라 대통령 후보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메가와티는 자신의 딸인 푸안마하라니(Puan Maharani: 푸안) 국회의장에게 대선후보로 역할을 부여하려고 한다. 그는 지난 의장 선거에서 노골적인 형태로 푸안을 지원하였고, 총재 권한 일부를 넘겨주는 정치적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제시한 여론 조사 결과에서 확인하듯이 푸안의 지지율(2.2%, 2%)이 같은 당 경쟁자인 간자르나 아니스에 비해 낮은 것은 자명하다. 물론 메가와티의 영향력이 여전한 상황에서 푸안 이외의 인물이 투쟁민주당의 공천권을 얻는 것이 쉽지는 않다. 이에 따라 아니스는 수리아 팔로(Surya Paloh) 총재의 제안을 받아들여 나스덴

당(Partai NasDem)의 대선 후보로 출마선언을 하였다. 향후 투쟁민주당의 대선 일정은 메가와티의 결정과 조코위의 영향력 그리고 간자르의 정치적 선택에 의해 여러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린드라당은 프라보워를 대선 후보로 선출하였다. 유력 대선 후보 중 가장 일찍이 출마선언을 한 프라보워는 조코위 대통령의 지지와 함께 여러 여론조사에서 높은 지지율을 이어오고 있다. 더욱이 대선 출마를 위해 2022년 8월 인도네시아 최대 무슬림 단체인 엔우(NU)의 지원과 국민계몽당(PKB)과 전략적 동맹을 맺음으로써 영향력을 높여가고 있다. 하지만 PKB가 당 의장인 무하이민(Muhaimin Iskandar)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하지 않으면 연합을 과기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프라보워의 대선 여정 역시 험난할 것이다.

대선 후보 출마를 위한 정당 연합 과정에서 가장 일찍이 시작을 알린 정당들은 골카르당(Golkar), 통일개발당(PPP), 국민수권당(PAN)이다. 정당 연합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2022년 6월 이후 이들 정당들은 새 정치연합명을 ‘단합된 인도네시아 연합(Koalisi Indonesia Bersatu, 이하 KIB)’으로 명명하고 8월 11일 그 시작을 알렸다. 현재(2022년 11월 30일) 하원 정당 의석수는 골카르가 85석, 국민수권당이 44석, 통일개발당은 19석으로 세 정당의 의석수만으로 대선 후보를 공천할 수 있다. 하지만 KIB가 당면한 문제는 대선 후보 중 한명인 골카르당 총재인 아이를랑가 하르타르토(Airlangga Hartarto)의 지지율이 낮아 새로운 대선 후보 영입에 대한 당원들의 요구이다.

선거 구도가 확정되지 않은 시점, 후보 출마를 위한 국회 의석수 제한과 이로 인한 정당 간 연합, 대중들의 높은 지지에 비해 소속 정당에서 외면 받는 출마 예정자, 조코위 대통령의 높은 지지도 등이 향후 선거의 주요한 변수이다.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 중 일부는 2023년 10월 후보 등록 시기가 가까워지면서

그 영향력이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2022년 인도네시아 정치와 2024년 선거의 주요한 변수는 최종 임기의 중반을 넘어가는 조코위의 영향력과 그의 선택이 될 것이다.

3. 요원해진 정치개혁과 바깥세계로 둘러진 시선

조코위가 2019년 선거 당시 내세웠던 캐치프레이즈는 “전진하는 인도네시아(Indonesia Maju)”이다. 직접적인 정치개혁 과제 제시보다는 경제발전을 통한 인도네시아 사회의 안정을 꾀한다는 기조이다. 즉 민주화의 가속화가 아닌 자신이 사업가 시절 느낀 인도네시아 사회의 부조리와 효율적이지 못했던 제도 개혁을 추구하는 것이다(이지혁 2022).

조코위는 이러한 구상 실현을 위해 한편으로는 인프라 구축을 통한 경제 활성화 전략을 내세웠고(Hill and Negara 2019), 다른 한편으로는 옴니버스법을 통해 비효율적인 분야로 생각되는 노동, 환경, 투자 규제에 대한 개선의 의지를 표명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21년 11월 25일 판결을 통해 옴니버스법이 가진 입법 절차상의 흠결(cacat formil)을 지적하면서 헌법불합치 결정(No.91/PUU-XVIII/2020)을 내렸다. 조코위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존중의 의사를 내비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 진행 중인 투자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것이라고 말한다(Thomas 2021, 이지혁 2022 재인용). 또한 현재 결정에 대한 대응 과정이지만 불필요한 관료주의의 폐지, 규제의 최소화, 외국인 투자기업의 운영 자율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사우다란다 따리간 2022).

옴니버스법에 대한 학자들의 평가는 인도네시아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지만 시민의 권리를 위협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권용숙 2021; Hamid 2020; Mietzner 2020; Mietzner

2021; Pangestu 2020; Widjaja 2022). 고층빌딩의 건설, 교량 건설, 현대식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은 조꼬위의 기술적이며 실용적인 단면을 보여준다(Pangestu 2020).

하지만 옴니버스법이 추구하는 근로계약 해지 사유의 추가, 퇴직보상금의 감액, 초과 근무 허용 시간의 증가, 장기근속휴가의 폐지, 아웃소싱 허용 범위의 확대 등은 노동유연성을 증가시키고 노동자의 권익을 훼손하는 등 사용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Hamid 2020; 권용숙 2021). 특히 인도네시아 사회의 약자인 여성과 노동자에게도 피해를 줄 여지가 있는 조항도 보인다.

노동법 제93조2항은 생리기간 중 유급휴가를 허용하지 않으며, 도시별로 설정된 최저임금 제도가 폐지됨으로써 노동자의 권익 역시 훼손될 것이다. 끝으로 환경 문제에 대한 우려 역시 엿보인다. 법률안 제29조, 제30조, 제31조는 개발 산업 진행시 기업의 환경영향평가서(AMDAL) 작성을 유지하지만, 이를 심의할 환경전문가, 지역대표, NGO로 구성된 독립위원회의 폐지를 촉구한다. 이는 결국 향후 개발 산업 진행시 환경영향평가서의 발행과 검토 과정의 형식화를 초래한다(Hamid 2020).

절차적, 실질적 민주주의의 달성에 대한 인도네시아 국민의 열망에도, 조꼬위 재임 기간 민주주의의 쇠퇴에 대한 여러 문제가 제기된다. 자유선거에 대한 위협과 시민 사회와 선거에 대한 군의 개입 정도의 심화(Mujani & Liddle 2021), 인권운동가들에 대한 공격의 증가와 정부의 대학과 연구 부문에 대한 통제(Freedom House 2022) 그리고 정치적 편파주의(favouritism)와 왕조주의(dynasticism)의 출현(Jati 2001) 등이 민주주의 후퇴에 기여하는 요소로 분류된다. 앞서 제시한 2024년 선거에서 조꼬위의 영향력이 여전히 작동한다는 점은 그의 정치적 활동과 정책적 성과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보여준다. 이는 조꼬위 정부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 즉 경제발전

을 통한 생활수준의 향상이 궁극적으로 민주주의 발전과 같은 정치적 성과로 연결됨을 확인시켜준다.

하지만 조코위가 2022년 하반기 프라보워와 간자르에 대한 직접적 지지를 표명했다는 지점에 대해서는 새로운 고찰이 필요하다. 물론 현직 대통령이 국내 정치상황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책임정치 측면에서 불합리하지만, 현실적으로도 대통령에게 위선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다. 다만 민주주의 제도 보호를 위해 선거 과정에 직접적인 관여를 자제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특정 인물에 대한 지지가 현재 내각의 구성원 혹은 같은 당 후보에 대한 의견 개진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행정과 입법 권력을 획득한 상황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국가 자원을 동원할 수 있다는 인상을 국민에게 줄 수 있다.

조코위는 1기 집권기에 정치적 안정을 꾀한 후 추진한 ‘조코위 스타일의 신개발주의(Jokowi-styled New Developmentalism)’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Warburton 2016). 이러한 전략은 2기 집권기에 더욱 강화되어 사용된다. 인도네시아 의회의 574석 중 471석을 장악한 상황에서 조코위가 원하는 거의 모든 법률은 통과될 수 있다. 또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을 가진 국가수도청장(Kepala Badan Otorita Negara)은 형식적으로 국회와 협의를 통해 선출하지만,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선출과 해임을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Albert & Azeem 2022). 결국 일부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경제 관련 정책 역시 입법과 행정 권한을 가진 대통령에 의해 추진될 수 있다.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한 내치와 함께 조코위 2기 정부가 중점을 두는 분야는 국제외교 분야에서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다. 조코위 2기 정부의 외교 구상과 2022년의 실질적인 활동은 인도네시아 정치 분야에서도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 조코위 행정부가

2022년 추진한 외교 활동은 크게 두 가지이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진행과정과 의미 등은 IV장에서 논의할 것이며, 이 장에서는 정치 분야와의 관련성만 검토한다. 즉 국제외교의 성과가 인도네시아 정치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집중한다.

인도네시아의 2022년 국제외교는 우크라이나 전쟁 당사국에 대한 중재와 G20 발리 정상회의 개최였다. 두 차례의 외교행위를 통해 조코위는 일정한 성과를 달성하였고, 이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국제 사회의 신뢰도 상승으로 이어졌다. 특히 2022년 국제외교 분야의 주요한 논의 주제인 보건과 경제위기는 인도네시아가 지난 몇 년간 겪고 있는 경제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내수시장의 부진, 인플레이션, 유류 보조금 축소와 연결되는 에너지 위기 등은 인도네시아 사회가 직면한 위기의 원천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조코위는 외교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으로 당위성을 확보하였고, 여러 반발이 예상되는 구조 개혁과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원동력으로 활용하였다.

결국 조코위는 글로벌 위기가 끊이지 않고 있음을 주창하면서, 국제 정세가 인도네시아의 정치, 경제, 사회 문제와 직면함을 강조한다. 즉 정치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이견들을 그의 정치적 구호인 ‘전진하는 인도네시아’ 실현을 저해하는 요소로 활용한다. 또한 움니버스법 통과를 비롯한 경제성장을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권위주의화로 이끈다는 비판을 외교적 성과를 통해서 희석시키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Ⅲ. 2022년 인도네시아 경제

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달러·루피아 환율이 15,000루피아를 넘어

15,716루피아(2022년 11월 1일 종가 기준)에 달하자 인도네시아 경제의 유동성은 극에 달했다. 경기과열과 경상수지 적자 누적에서 시작된 1990년대 후반의 아시아 금융위기와 미국의 ‘주택저당채권’에서 비롯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신흥국의 환율 불안정을 초래했다. 특히 미국 달러의 고공행진과 연준의 급격한 금리인상은 신흥국들의 경제적 부담을 초래한다. 무역수지 적자, 물가상승, 채권 수익률 상승, 외국인 투자 자금 이탈 등은 신흥국 금융시장의 부채 증가와 인플레이션을 가중시킨다.

특히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2년 9월 3일 연료 보조금을 삭감하는 방법으로 기름값을 인상했다. 퍼르타라이트(Pertalite)는 7,650루피아에서 10,000루피아, 솔라(Solar)는 5,150루피아에서 6,800루피아, 퍼르타막스(Pertamax)는 12,500루피아에서 14,500루피아로 인상하였다. 이로 인해 인도네시아의 9월 물가상승률은 5.95%에 달하였다. 높은 수준의 물가는 9월에 단행된 기름값 인상과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국제곡물가격 상승이 직접적인 요인이다.

그럼에도 거시적인 측면에서 인도네시아 경제 지표를 검토한 결과 물가 상승 요인은 무엇보다 루피아 가치의 하락이다. 인도네시아의 2022년 경제성장률(GDP Growth)은 5.31%였다. 이는 2021년 경제성장률인 3.69%를 뛰어넘는 수치이다. 상품 소비 증가와 자원 수출의 증가가 경제성장률 상승의 동력으로 평가된다. 코로나19 이후 준수한 대외 수출 실적, 국내 소비 시장의 부활, 외국인 투자의 증가는 인도네시아 경제의 긍정적인 요인이다. 이런 긍정적인 요인과 달리 루피아 가치의 지속적 하락은 물가상승률과 직접적으로 연동됨으로써 결국 인도네시아 경제에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한다.

코로나19 팬데믹 과정에서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경제 환경을 주도한 분야는 디지털 경제이다. 디지털 경제는 디지털 기술의 혁신적 발전과 함께 이로 인해 창출되는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가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제구조를 의미한다(한국동남아학회 2021: 27). 조코위 정부 1기 후반부터 시작된 디지털 경제개발 정책은 조코위 정부 2기 시작과 함께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메이킹 인도네시아 4.0(Making Indonesia 4.0 initiative)’은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경제를 상징하는 정책이다.

무엇보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e-commerce: 이하 이커머스) 시장 변화를 촉발하였다. 고젝(Gojek), 토크피디아(Tokopedia), 부칼라팍(Bukalapak), 트래블로카(Traveloka), 오포(OVO) 등 5개 ‘유니콘’ 기업이 그 중심에 있다. 전자상거래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0년 거래금액이 전년 대비 23% 증가하였고, 2020년 총상품가치(GMV¹⁾)가 320억 달러로 증가하였다(한국무역협회 2021). 포스트 팬데믹 기간인 2022년에도 인도네시아 이커머스 시장은 23.8% 성장이 예상된다. 또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연간 22%의 지속적인 성장을 보일 것이며, 2025년 이커머스 전체 시장규모는 538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GlobalDa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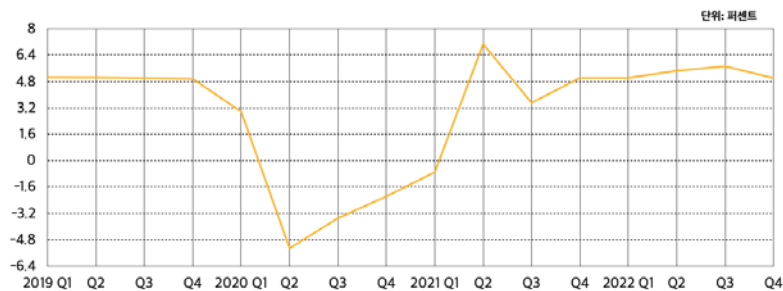
2022년 인도네시아 경제 환경과 변화의 조망을 위해 대외적으로는 미국에서 시작된 달러화의 상승과 금리인상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대내외적으로 디지털 경제의 성장과 변화 그리고 이를 주도하는 유니콘 기업의 현황을 검토한다.

1. 루피아 환율변동과 인도네시아 거시경제

인도네시아에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종변이의 영향은 2022년 1분기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안정되어 갔다. 이에 반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변동성은 경제성장률과 소비 시장의 활성화 측면에서

1) 전자상거래 업체의 특정 기간 동안 이뤄진 총 매출액, 즉 총 상품 판매량을 의미한다.

본다면 2021년 4분기에 안정되어 갔다. 2021년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률은 3.7%로 코로나19 초기 마이너스 성장률(-2.07%)로부터 V자 반등에 성공했다. 특히 2021년 2분기 성장률은 7.07%를 기록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신호탄이 되었다.



<그림 3> 인도네시아 분기별 경제성장률 변화

(출처: 인도네시아 통계청 자료 재인용)

주요 경제 기관이 예측한 2022년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은 2021년과 비슷한 5%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했다.²⁾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요인보다는 우크라이나 전쟁, 식량과 에너지 위기 그리고 미국의 테이퍼링(tapering)과³⁾ 금리인상이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 변화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2022년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은 1분기 5.44%, 2분기 5.01%, 3분기 5.72%, 4분기 5.01%를 기록했고, 이는 2021년 2분기 이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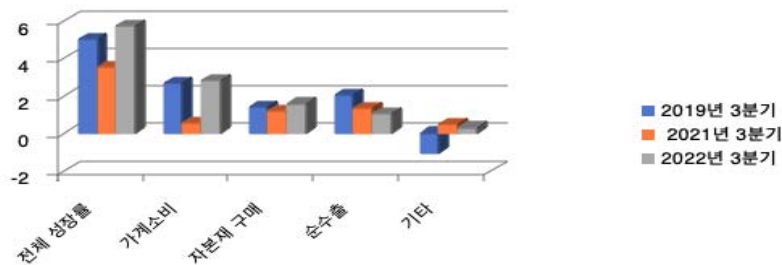
특히 코로나19 이전해인 2019년 연간 경제성장률이 5.02%인 것을

2) 세계은행 5.2%, 국제통화기금 5.9%, 아시아개발은행 4.8%, 인니 재무부 5.2%, 인니 중앙은행 5.5%, 인니국립대학 5.1%-5.4%(외교부 2022).

3) 경제학과 경영학 분야에서 축소, 감소, 악화 등을 뜻하는 의미이다. 금융계에서 테이퍼링은 양적완화를 위한 채권 매입 속도를 줄이는 것으로 이해되며, 이를 위해 시중에 풀린 달러화를 회수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한다.

감안하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서 완전히 벗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내수 소비 시장의 활성화와 원자재 수출 가격 상승은 2022년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을 이끈 주요 요인이다. 팬데믹으로 인하여 움츠렸던 국내 소비시장이 2022년 1분기 이후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수가 완연하게 감소함으로써 경제 회복과 성장의 동력이 되었다. 내수 소비 시장과 관련된 정보·통신, 환대 서비스(hospitality service), 기타 서비스 부문은 2022년 2분기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8%~9% 성장이 이루어졌다(EMERiCs 2022년 8월 12일). 내수 소비 시장의 성장세는 3분기에도 이어졌는데, 환대 서비스업은 17.83%, 기타 서비스업 9.13%, 정보·통신은 6.88% 성장을 달성하였다. 인도네시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경제의 절반을 차지하는 민간소비는 2021년 3분기 대비 5.39% 성장하였고, 이는 중상류층의 가계 지출 증가와 연관되어 있다.

(단위: 퍼센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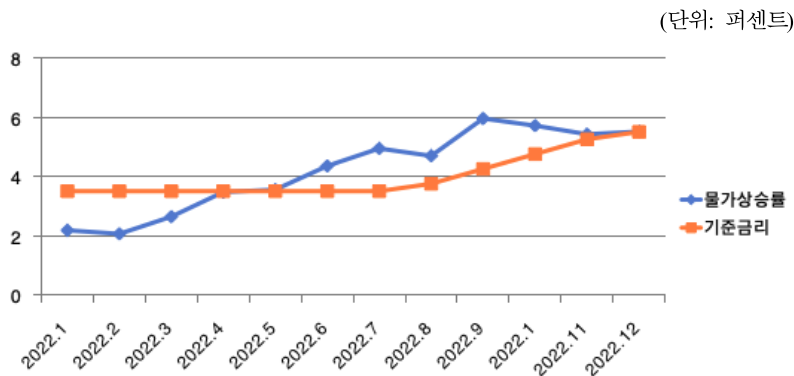
<그림 4> 분야별 GDP(3분기) 성장률 기여 비율

(출처: KOTRA, 인도네시아 통계청 자료 재인용)

내수경제의 활성화로 인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에도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한다. 내수경제의 성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는 높은 수준의 물가상승률이다(<그림 5> 참조).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연초에 제시한 물가상승률 목표 구간은 2%~4% 수

준이었다. 하지만 복합적인 대내외적인 환경으로 인해 물가는 급격하게 상승하였다. 목표한 물가상승률을 넘어섰던 6월 이후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을 위해 8월 기준금리를 3.5%에서 3.75%로 인상했다. 기준금리의 상승으로 8월 물가상승률은 다소 완화되었지만, 인도네시아 정부가 9월 3일 보조금 적용 대상 연료 가격을 인상하면서 9월 물가지표는 연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9월부터 매월 0.5%씩 3개월 연속 그리고 12월 들어 0.25% 상승시켰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금리가 0.5%와 0.75% 상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역시 비슷한 행보를 보였고 이러한 기조는 2023년에도 지속될 것이다.



<그림 5> 2022년 인도네시아 물가상승률과 기준금리
(출처: 인도네시아 통계청,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자료 재인용)

원자재 가격 상승은 결국 2022년 인도네시아 경제가 다른 국가에 비해 건설하게 성장한 주요 요인이 되었다. 인도네시아의 2022년 전체 수출액은 전년에 비해 약 15% 상승한 2,681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제조업 내 철강 수출 증가와 주요 수출품 중 하나인 석탄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수출액 증가에 기여하였다. 2021년 1월 톤당 72달러에 머물던 석탄 가격은 2021년 12월에 들어서 톤당 149달러까지 상승했다. 국제 석탄 가격의 상승은 2021년 인도네시아가 350억 달러 이상의 무역흑자를 달성하는데 이바지하였다. 석탄 가격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22년 11월 400달러까지 상승하였고, 이는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되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전체 수출의 약 10%를 차지한 팜유는 국제 곡물 가격 인상과 함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세계 최대 팜유 수출국인 인도네시아는 국내 식용유 가격 상승을 이유로 팜유 수출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면서, 국제시장에서 팜유 생산과 수출의 독점적 지위를 활용하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표 1> 연도별 인도네시아 수출 현황(2019-2022)

구분	인도네시아 수출 현황 (단위: 백만 달러)			
	2019	2020	2021	2022
전체	167,683.0	163,191.8	231,609.5	268,151.2
가스 및 석유	11,789.3	8,251.1	12,247.4	15,546.9
비석유 및 가스	155,893.7	154,940.7	219,362.1	253,604.3

(출처. 인도네시아 통계청 자료 재인용)

팬데믹 이후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자원 민족주의의와 자원무기화 정책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는 원자재에 대한 수출 중단 조치를 이어오고 있다.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주요 원료인 니켈은 2019년 말부터 니켈 원광 수출 금지 조치가 취해졌고, 이외에도 보크사이트, 구리, 주석, 알루미늄 수출 금지가 예정되어 있다. 인도네시아의 원자재 수출 제한 조치는 국제 광물 시장 공급 부족과 결부되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만, 결과적으로 인도네시아의 무역흑자와 경제성장률 상승에 크게 이바지한다.

2. 인도네시아 디지털 경제의 성장⁴⁾

인도네시아의 국제여행지 중 한 곳인 발리는 인도네시아 디지털 경제 성장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된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전후 디지털 경제가 어떤 방식으로 주민의 삶에 깊숙이 자리 잡게 되었는지를 확인시켜준다.

코로나19 이전 발리의 주요 관광지 중 한곳인 우붓(Ubud)에서는 고젝과 그랩의 영업 활동이 금지되었다. 물론 관공서나 관광 관련 기관에서 플랫폼을 활용한 운송 영업을 금지하지 않았다. 하지만 우붓의 사설 택시기사 그리고 플랫폼 기업의 확대를 염려하는 업주들의 이해관계가 작동하면서 플랫폼으로 운영되는 운송서비스가 금지되었다. 물론 일부 관광객과 손님 없이 되돌아가야 하는 기사와의 이해관계가 맞으면서 호출서비스가 이루어졌지만, 이 역시 지역 택시기사에게 발각되면 심각한 정도의 폭력과 위협이 뒤따랐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관광이 멈추었고, 이에 반하여 인도네시아 전역에서는 전자상거래와 전자결제가 일상의 전 영역을 지배하게 되었다. 앞서 우붓에서 발생했던 기존 택시기사의 플랫폼 기사에 대한 폭력과 위협은 먼 과거의 일로 치부되었다. 발리 지역에 여행이 재개되었고 관광객은 더 이상 택시 기사와의 지루한 흥정을 할 필요가 없어졌고, 호텔과 빌라에서 다양한 플랫폼으로 음식 주문과 비용 지불이 이루어진다. 그동안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지 않던 택시기사는 호출서비스의 기사로 변신하고, 식당 업주들은 서둘러 기존의 간판 옆에 빨간 바탕색의 고푸드(GoFood)와 녹색의 그랩푸드(GrabFood) 간판을 설치하여 플랫폼 주문이 가능한 곳임을

4) 한국동남아학회(2021)의 『4차 산업혁명 시대 동남아시아 플랫폼 기업의 성장과 사회경제적 변화』의 제3장 ‘인도네시아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내용을 참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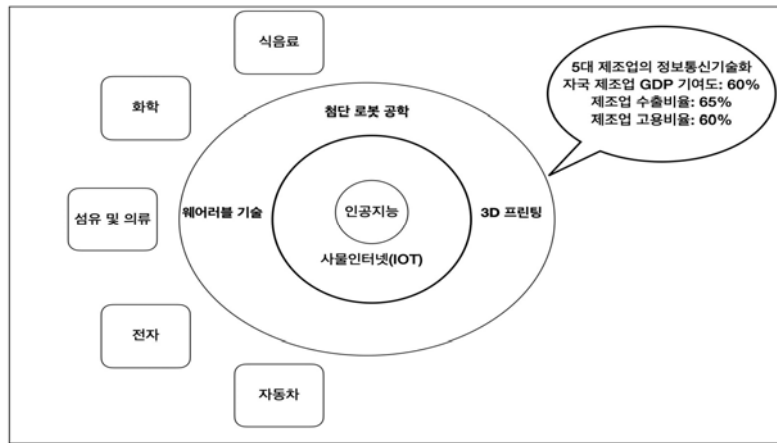
표시한다.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y: ICT)의 발달은 우리의 일상을 디지털 경제로 전환시켰다. 기업 역시 이러한 환경에 발맞추어 공장 운영방식, 공급망 변화, 제품 생산과 서비스 방식을 변화시켜 효율의 극대화와 더욱 높은 수준의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디지털 경제에 대한 표준화된 정의가 정립되지 않았지만 대체로 전자 상거래, 자동화, 인공지능, 공유 및 공연 경제와 같은 활동을 위해 디지털 기술이 사용된 분야를 통칭한다(한국동남아학회 2021: 28).

4차 산업의 도래와 이를 통한 경제 분야의 성장은 조코위가 본인의 첫 번째 임기의 시작과 함께 지속적으로 강조한 분야였다. 도로, 항만, 통신 분야의 후진성은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에 있어 치명적인 요소인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조코위는 낙후된 인프라 확대를 주요 정책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조코위 정부의 디지털 경제개발 정책 중 주목받는 정책은 ‘메이킹 인도네시아 4.0(Making Indonesia 4.0 Initiative)’이며, 정책의 목표 지점은 인도네시아가 2030년까지 세계 10위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는데 있어 기존 산업 분야의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인도네시아 수출 산업을 이끌고 있는 광물업, 화학, 전자, 제조업 등 산업 전 분야에서 AI와 IT 등 디지털경제 개념 도입을 통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달성하는 것이다(<그림 6> 참조).

물론 정부의 이러한 정책방향과 달리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현실에서 디지털화를 단시일에 달성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의 해결을 위해 정부는 인터넷 접근성 향상, IT와 AI 산업분야 활용을 위한 초고속 통신망을 정비하는 ‘팔라파 링(Palapa Ring)’ 사업을 2019년 중반부터 운용하였다. 국가개발계획청(Kementerian Koordinator Bidang Perekonomian)의 주도로 인도네시아를 서부, 중부, 동부의 세 지역으로 구분하여 12,148km²의 해저 광케이블 매설을 통해 초고속 통신망

구축을 실행중이다(한국동남아학회 2021: 60).



<그림 6> 메이킹 인도네시아 4.0 체계도

(출처: 인도네시아 산업부 홈페이지 재구성)

정부 정책의 뒷받침과 기업의 혁신은 산업생태계에 일정한 변화를 촉발하였다. 특히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 지역의 디지털화는 모바일 환경이 변화를 주도하였다. 모바일을 토대로 여러 스타트업이 시작되었고, 이들은 혁신적인 아이디어, 소비자 편의성 극대화, 기존 관념의 탈피를 통해 기업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스타트업에게 부여된 유니콘(Unicorn)과 기업가치가 100억 달러 이상인 스타트업에게 부여된 데카콘(Decacon)으로 성장하였다. 시장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결국 소비자의 선택에 달려있고, 빠른 도약(Leap Frogging)을 거쳐 아세안도 모바일 퍼스트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영경 2021: 25).

모바일로 변화된 시장 환경과 함께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비접촉 방식과 같은 생활습관의 변화는 전자상거래 시장의 확장을 촉발

시켰다. 더욱이 인도네시아에서 소위 ‘슈퍼앱’이라 부르는 플랫폼 기업들은 다양한 마케팅과 사용의 편의성을 무기로 디지털을 일상의 영역으로 불러들였다. 인도네시아로 한정하면 팬데믹 이후 약 2,100만 명의 디지털 소비 계층이 생겨났다. 흥미로운 부분은 사용자의 72%가 대도시 주민이 아닌 소도시의 주민이다(Google · Temasek · Bain&Company 2021). 즉 조코위 정부를 비롯한 인도네시아 역대 정부의 중요 정책 목표 중 하나인 균형발전 정책이 디지털화 과정에서 일정한 성과를 보인 것이다.

인도네시아의 디지털경제는 지난 3년간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다. 코로나19 이전해인 2019년에는 410억 달러였지만, 2021년에는 630억 달러 그리고 2022년에는 22% 성장한 770억 달러에 이르렀다. 디지털경제 영역에서 가장 두드러진 영역은 전자상거래 영역으로 매년 20~30% 성장세를 보이고 2022년에는 590억 규모에 이르렀다. 2015년만 해도 전자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온라인 여행 부문보다 적은 규모였지만, 어느 순간 급격하게 증가했다(<표 2> 참조). 그만큼 소비자들의 쇼핑이 온라인으로 이동했다는 뜻이며, 2020년 팬데믹으로 더욱 가속화 되었다(고영경 2021: 30).

전자상거래의 성장과 함께 인도네시아 디지털 경제에서 주목되는 영역은 디지털 결제(digital payment) 시장이다. 은행거래와 신용카드 발급비율이 낮은 인도네시아에서 전자상거래의 성장은 지불수단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달려 있다.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결제는 전자화폐나 전자지갑(e-wallet)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현금 없는 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 정책이 구현되면서 비은행 부문 핀테크 기업의 성장세가 뚜렷해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인도네시아 디지털 결제 시장은 해마다 10%씩 성장하였다. 2019년에는 2060억 달러, 2021년에는 2340억 달러 그리고 2022년에는 2660억 달러의 규모로 성장하였다(Google · TEMASEK · Bain & Company 2022: 93).

<표 2> 인도네시아 디지털 경제 규모

(단위: 달러)

	2019년	2021년	2022년	2025년(예상)
디지털경제 (전영역)	410억	630억	770억	1300억
전자상거래 (E-commerce)	250억	480억	590억	950억
운수와 식음료 (Transport & Food)	60억	70억	80억	150억
온라인 여행 (Online Travel)	70억	20억	30억	100억
온라인 미디어 (Online Media)	30억	61억	64억	110억

(출처: Google · TEMASEK · Bain & Company 2022: 92 재인용)

인도네시아 정부의 허가를 받은 전자지갑 플랫폼은 2020년 2월 기준으로 총 41개이다. 한국 기업으로는 2019년 10월 삼성 페이(Samsung Pay)가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했지만, 여전히 인도네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 시작한 전자지갑 플랫폼 기업이 상위 5개를 차지하고 있다. 콤파스(Kompas)는 2022년 7월 18세에서 55세까지 1,000명을 대상으로 이용 빈도가 높은 전자지갑은 무엇인지에 대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고펀이(Gopay)는 88%, 다나(Dana)는 83%, 오포(OVO)는 79%, 쇼피 페이(Shopee Pay)는 76% 그리고 링크아자(LinkAja)가 30%의 이용률을 보였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인도네시아의 M세대(1981년~1995년)는 전체 인구의 25.87%인 약 6,900만 명이며, Z세대(1996년~2012년)는 27.94%인 약 7,400만 명이다. MZ세대 중심의 높은 인구비율, 사회 환경의 불편함과 이의 극복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 수요, 모바일 환경

등은 인도네시아가 급격하게 디지털로 전환되는 밑바탕이 되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기존의 미국과 중국의 플랫폼 기업과 달리 여러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즉 ‘슈퍼앱’의 성장이 디지털화 성공과 연결되어 있다.

인도네시아의 스타트업이 다종한 사업영역으로 확장한 이유는 무엇보다 이들 기업들이 소비자-소비자(C2C) 분야에서 시작했기 때문이다. 고객은 온라인 기반의 교통과 물류 서비스가 그 시작이었고, 토코페디아와 부카라팍은 온라인 소매 판매가 중심에 있었다. 또한 이들이 성장하게 된 주요한 요인은 모바일을 중심으로 하는 디지털 화였고, 이들은 모바일 생태계의 플랫폼 역할을 통해 다종한 사업 영역을 잠식해 나갔다. 2022년 기준으로 스타트업으로 시작하여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한 인도네시아 기업은 총 10개이다(<표 3> 참조).

<표 3> 인도네시아의 10대 유니콘 기업과 가치평가 및 사업영역

	기업 가치	사업 영역	유니콘 달성연도
GoTo Group	280억 달러	이커머스, 핀테크	2021년
J&T Express	200억 달러	물류	2021년
Traveloka	28억 달러	여행	2017년
Bukalapak	25억 달러	이커머스	2017년
OVO	20억 달러	핀테크	2019년
JD.ID	16억 달러	이커머스	2020년
Akulaku	15억 달러	이커머스	2022년
DANA	11억 달러	핀테크	2022년
Ajaib	10억 달러	핀테크	2017년
Kopi Kenangan	10억 달러	이커머스	2021년
Xendit	10억 달러	핀테크	2013년

(출처: cbinsights, Lunicom 사이트 재정리)

전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들어서고 디지털 경제로 전환 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인도네시아에서도 많은 수의 디지털 플랫

폼 기업이 설립되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환경은 이들 기업이 성장하는데 주요한 동력이 되었다. 2022년 인도네시아인의 일상이 되어버린 디지털 플랫폼 기업은 더 이상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이 아닌 새로운 시장 지배자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IV. 2022년 인도네시아 외교 및 한-인도네시아 관계

1. 국제외교 무대의 주연으로 떠오른 조코위 대통령

인도네시아는 지구적 이슈에 대한 관심, 다자주의 선호, 국제분쟁 중재 추구, 규범외교 등 중견국 외교의 특성을 모범적으로 드러내는 외교를 펼쳐왔다(서지원 2021: 210). 하지만 조코위는 대통령 취임 이후 연례 유엔 총회에서 연설한 적도 없을 만큼 외교 분야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이지혁 2022: 180). 물론 아세안의 창립자이자 많은 지분을 가진다고 믿는 인도네시아는 2021년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해 아세안의 합의를 이끌어 내거나, 아세안 외교에서 미얀마를 배제하는 등의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다.

외교 분야에서 조코위의 2021년 활동이 국제 관계에서 인도네시아의 역할을 찾고 위상을 회복하는 과정이었다면(이지혁 2022: 181), 2022년은 아세안을 넘어 국제무대의 주역으로 활동한 시기로 평가할 수 있다. 아세안 유일의 G20 국가로서 위상을 지녔으며 더욱이 G20 발리 정상회의의 의장국으로서 일정한 성과를 내면서, 글로벌 리더십과 중진국 지위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열망을 대외적으로 표출한 한해가 되었다.

북반구 지역의 봄을 기다리는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특별 군

사작전 개시 명령 선언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팬데믹 이후의 경제회복을 기대하는 세계인에게 식량 문제, 인플레이션, 에너지 위기를 가져왔다. 집권 2기를 맞이한 조코위 정부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이 필요했고, 더욱이 G20 정상회의의 의장국으로서 분쟁 현안에 대한 주도적인 협상을 이끌 요청과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를 위해 조코위는 6월 27일부터 28일까지 독일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후, 29일 젤렌스키 대통령(Volodymyr Oleksandrovych Zelenskyy: 이하 젤렌스키), 30일 푸틴 대통령(Vladimir Vladimirovich Putin: 이하 푸틴)과 회담을 진행했다.

조코위의 전쟁 당사국 정상과의 회담은 그동안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과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유럽과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의 지역 패권 장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였다. 하지만 조코위는 유엔헌장 2조 3항 ‘모든 회원국은 국제 평화와 안보, 정의가 위협받지 않는 평화적 수단으로 국제분쟁을 해결해야 한다’을 내세우면서 평화적 해결을 위해 양국의 지도자와 조우하였다.

조코위의 일련의 외교 활동이 전쟁의 평화적 해결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 조코위는 인도네시아와 같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개도국이 전쟁으로 인한 식량 위기 상황에 더욱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양국을 중재하였다. 조코위의 중재외교는 7월 26일부터 시작된 동아시아 지역 순방으로 이어진다. 순방 첫날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일대일로 협력 심화와 다자주의 강화 등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순방 이틀째에는 도쿄에서 기시다 일본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포함해 해양 질서 유지를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는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박은하 2022). 순방 셋째 날에는 서울에서 윤석

열 대한민국 대통령과 공급망과 인프라 건설 등 경제 분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를 골자로 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조코위의 유럽과 아시아를 넘나드는 순방외교는 일차적으로 G20 의장국으로 국제 사회에서 책임감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함이다. 이와 동시에 조코위는 식량 문제와 에너지 위기 등 개발도상국이 처한 어려움에 앞장서면서, 비동맹 외교의 중심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던 과거의 영광을 복원하기 위함도 엿보인다.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일본, 한국을 차례로 순방하면서 자신의 최고의 치적 중 하나인 경제 성장이라는 목표를 동아시아 국가가 가진 인프라와 기술을 통해서 달성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흥미로운 부분은 최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평화와 공동 번영을 목표로 하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이를 미국 주도의 패권이라고 여기는 중국과는 철저히 실리 외교적 입장을 취한다는 것이다. 동아시아 순방 이전에 방문했던 유럽에서 폭넓은 중재외교를 통해 국제 사회에서 존재감을 키웠다면, 동아시아 지역 순방에서는 천연자원과 성장가능성을 무기로 경제협력 강화를 최우선함으로써 유연한 국제 외교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2022년 인도네시아 외교의 정점은 발리에서 개최되었던 G20 정상 회의였다. G20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조코위는 여러 국가의 정상과 사전 회담을 가졌다(<표 4> 참조).

<표 4> 2022년 조코위 대통령 방문국가 및 양자·다자 회담 일정

	일정	방문국가	세부내역
1	5월 10일	네덜란드	-
2	5월 10일~14일	미국	아세안-미국 특별 회의(ASUU) 참석
3	5월 15일	UAE	-
4	6월 26일~27일	독일	G7 정상회의 참석
5	6월 28일	폴란드	-

6	6월 29일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양자회담
7	6월 30일	폴란드	-
8	6월 30일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양자 회담
9	7월 1일	UAE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얀 대통령과 양자 회담
10	7월 26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양자 회담
11	7월 27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양자회담
12	7월 28일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과 양자회담
13	11월 10일 ~ 13일	캄보디아	아세안 정상회의와 동아시아 정상회의 참석
14	11월 18일 ~ 19일	태국	APEC 태국 정상회의 참석
15	12월 13일 ~ 14일	벨기에	아세안-유럽연합 기념 정상회의 참석

G20 정상회의 이전 조코위는 대외적으로 전쟁 중단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였고, 대내적으로는 다양한 사회 갈등을 경제성장이라는 틀에 가두어 사회적 안정을 추구하였다. G20 정상회의가 개최된 발리섬은 도로를 새로 포장하고 도로 인근의 무등록 주택과 시설 철거를 통해 중진국으로 성장과 위상을 전세계에 내세웠다.

발리 G20 정상회의는 2022년 11월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 개최되었으며, ‘함께하는 회복, 보다 강한 회복(Recover Together, Recover Stronger)’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조코위는 개회사에서 “전 세계의 시선이 오늘 우리에게 쏠려 있다. G20은 반드시 성공해야 하며 실패해서는 안 된다.”라는 야심찬 언사와 함께 회담은 시작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 공급망 혼란과 인플레이션,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소극적 대응 등 경제, 정치 그리고 지정학적 위기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환경에서 G20 정상회의의 성공을 낙관하기 어려웠다. 이번 회의는 글로벌 보건체계(global health architecture),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sustainable energy transition)이라는 세 가지 주요 주제가 제시되었고, 이에 따라 총 3가지 세션이 진행되었다. 첫 번째 세션은 글로

별 복합 위기 해결을 위한 ‘식량·에너지 안보’이다. 두 번째 세션은 코로나19 팬데믹 종식과 감염병 대응력 강화를 위한 ‘보건’ 분야이다. 마지막 세션은 디지털 역량과 문해력 제고를 위한 ‘디지털 전환’ 분야이다.

정상회의 이전 주요 참가국 중 하나인 러시아의 푸틴은 회담에 참석하지 않았고, 전쟁을 둘러싼 각국의 입장과 관계가 첨예한 상황으로 인해 정상선언문이 발표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하지만 세계경제 둔화, 기후변화, 식량·에너지 위기, 지정학적 분쟁에 대한 대응과 공조 필요성을 담은 정상선언문이 채택되었다(강선주 2022). 비록 의례적으로 촬영했던 단체사진을 남기지 못한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 해결을 위한 대안이 제시되지 못하였다. 또한 미·중 정상 회담이 열렸지만 미국과 중국의 패권을 둘러싼 대립은 여전히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채 실효성 없이 마무리 되었다.

조코위는 이번 회의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인도네시아와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둔다. ‘2020년 리야드 G20 정상회의’에서 의장국을 수임 받았던 조코위는 G20이 그동안 경제적인 분야, 특히 선진국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 한다는 점에 대해 문제제기 하였다. 이를 위해 2022년 인도네시아, 2023년 인도, 2024년 브라질, 2025년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차례로 의장국이 되면서 개도국 관련 논의를 확대할 것을 제시했다.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인도네시아는 개도국이 필요한 의제를 선점하고 이를 이끌어 나가는 국가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조코위는 G20에서 “공동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함께 일해야 하며, 우리는 개인의 자이를 낮추고, 우리는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세계 경제의 회복을 촉진하고 위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동 기반을 확대하고 강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정상회의 이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방문 당시 전쟁의 평

화적 문제 해결을 추구한 것이 한편으로는 공허한 외교적 활동으로 생각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 평화를 위해 글로벌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은 주목된다.

또한 G20 정상회의 결과에 대해 대통령 비서실은 경제협정을 중요한 성과로 발표한다. 2,380억 달러 가치가 있는 226개의 다자간 협정 프로젝트와 714억 달러의 가치가 있는 140개의 양자 프로젝트에 대한 후속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한다(Cabinet Secretaria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2022). 또한 B20 회의(B20 Summit Indonesia 2022)에서 맺어진 투자 약속의 후속 계획 이행 필요성도 제시하였다. 인프라 펀딩, 전기차 개발 펀딩, 수마트라 횡단 유료 도로 건설 프로젝트 그리고 자카르타 지하철 건설 프로젝트에 한국, 중국, 일본, 터키, 영국이 관련 사업에 참여 예정이다.

국내 정치적 역학 구도와 달리 외교 분야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온전히 역할을 수행하는 분야이다. 조코위는 디지털 경제 촉진, 녹색 및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 그리고 국제보건체계 강화 등의 정책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이상의 정책 실현을 위해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정치적 안정을 요구한다. 이는 필연적으로 민주적 좌절을 초래할 가능성을 높일 우려가 있음을 지적한다(AI-Fadhat 2022).

이러한 우려에도 인도네시아의 2022년 외교는 조코위의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떨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2023년 아세안의 장국 역할을 부여받게 되면서 외교적 역량을 펼칠 수 있는 다른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 향후 인도네시아 정치와 경제 특히 2024년 대통령 선거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확신할 수 없지만, 현행 헌법체제에서 조코위가 선거에 출마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국제사회에서 인도네시아의 역할과 위상 제고에 주력한다는 조코위의 외교적 방향성과 능력이, 퇴임 이후 그에게 또 다른 역할을 부여하는 주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2. 2022년 한국과 인도네시아 관계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1966년 12월 1일 주자카르타 총영사관 개설을 시작으로 영사급 수교 관계를 맺었다. 이후 1973년 9월 18일 대사급 외교관계가 수립되었고, 이에 따라 2023년은 양국 수교 5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이다. 수교 50주년을 기다리는 2022년 양국의 대통령은 상대국을 방문함으로써 진전된 양국 관계의 상황을 반영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세계 경제의 유동성으로 양국의 경제 교류가 온전히 회복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양국의 2022년 교역량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⁵⁾ 무역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대(對)인도네시아 총 수출금액은 약 2,427억 달러이고, 총 수입금액은 약 1,978억 달러로서 약 449억 달러의 무역흑자액이 발생했다.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주요 수출 상위 5대 품목은 휘발유, 합성수지, 편직물, 집적회로반도체, 경유이며,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수입 상위 5대 품목은 유연탄, 천연가스, 식물제의류, 신발, 편직제의류이다(한국무역협회K-stat)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경제 분야에서 2022년의 큰 성과는 CEPA의 발효이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2020년 12월에 협정에 합의하였으며, 대한민국 국회는 2021년 6월, 인도네시아 국회는 2022년 8월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였다. 각국의 국내 비준 절차가 종료됨에 따라 60일 후부터 협정이 공식적으로 발효되었다. CEPA의 공식적인 발효로 기존의 한-아세안 FTA상 관세철폐 대상이었으나 실제로 철폐되지 않은 상호주의 품목과 민감·초민감 품목 역시 추가 자유화를

5) 2022년 1월부터 10월까지 수출액과 수입액을 집계한 수치이다.

달성할 수 있다. 결국 품목 수 기준으로 한국은 95.5%, 인도네시아는 93%, 수입액 기준으로 한국은 97.3%, 인도네시아는 97%의 관세 자유화를 달성할 것이다(통상추진위원회).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관계에서 2022년의 가장 두드러진 성과 중 하나는 국내 대기업의 인도네시아 현지 진출이다. 특히 미래 첨단 기술의 상징인 전기차와 배터리 생산 공장의 직접 진출은 주목된다. 한국 대기업이 인도네시아를 아세안 지역 수출의 최전선으로 여기면서 변화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국내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은 1962년 11월 12일 일본을 방문 중인 수카르노 대통령과 김종필 중앙정보부 부장과의 회담이 성사되고, 다음 해 7월 한국기업 진출의 전초전인 ‘산림개발조사단’이 수카르노 대통령을 예방하면서 진출이 본격화 된다(인도네시아 한인 100년사 편찬위원회 2020: 125).

한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은 그동안 1차 산업인 산림과 에너지 분야에서 집중되었다. 산림을 개발했던 한국남방개발공사주식회사(코데코), 목재업 분야에 진출한 코린도그룹, 석탄개발사업 분야에 진출한 한인니자원개발주식회사(키데코) 등이 1960년대에서 1990년대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초기 기업들이다. 이후 1980년대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봉제, 신발, 가발 등 노동집약적 한국기업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하였다. 당시 동남아시아 국가 가운데 인도네시아는 비교적 낮은 임금의 풍부한 노동력이 갖춰져 있었고, 더하여 일반특혜관세⁶⁾ 혜택을 받았기에 노동집약산업 분야의 한국 기업의 투자가 몰렸다(인도네시아 한인 100년사 편찬위원회 2020: 179).

하지만 2022년 현대자동차는 최대 25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자동차 공장을 건설하였고, LG에너지솔루션과 함께 11억 달러를 투자해 전기차 배터리셀 공장을 신설하였다. 이와 더불어 KCC글라스의 유

6)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GSP)는 개도국 지원을 위해 선진국이 개도국 수입품에 일방적인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리 생산 공장 설립과 롯데케미칼의 초대형 석유화학단지 건설 역시 주목된다. 그동안 인도네시아는 일본 자동차의 시장 점유율이 98%에 달할 만큼 일본 기업의 영향력이 큰 국가 중 하나였다(GAIKINDO 2022). 하지만 전기차와 배터리셀 공장 신설과 같은 사례는 향후 양국 경제 협력 분야의 다변화와 전문화 등 근본적인 변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한국 대기업은 그동안 인도네시아의 산업 환경의 불안정으로 투자를 머뭇거렸지만, 인도네시아의 거대한 내수시장과 아세안 시장 진출의 전초기지라는 점은 무시할 수 없었다. LG전자와 삼성전자가 백색가전 생산지로서 인도네시아를 선택하였고, 롯데마트는 기존의 대형마트 체인인 ‘마크로(Makro)’를 인수하면서 소매시장에 진출하였다. 자동차와 배터리셀 공장은 한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 분야가 과거와 달리 기술집약적 첨단산업 분야로 확장됨을 의미한다. 2022년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관계에 있어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던 한해로 기억될 것이다. 즉, 양국 관계에 있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special strategic relationship)’라는 외교적 수사에 머물지 않고, 민간 부문의 활발한 교류를 통한 상호 이익을 실현한 한해로 기억될 것이다.

V. 나가며

본고는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들어선 2022년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주요 이슈를 점검하였다. 정치, 경제, 외교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 현상을 설명하고 이와 관련한 배경과 효과를 분석하였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대응은 지난 2년간 여러 부침이 있었다. 전염병에 대해 조금은 과소평가한 분위기가 있었고, 조코위 역시 2기

정부 성공의 열쇠를 정치개혁보다는 경제성장에서 찾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와 감염자가 급격하게 늘어가고 국민의 불만이 커져감에 따라 PSBB와 같은 사회적 제한 조치가 취해졌다. 물론 조코위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는 경제 발전에 있었기에 백신 접종률을 높임으로써 전염병 상황을 극복하려고 하였다. 조코위 대통령은 2022년이 끝나가는 12월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집회와 이동에 더 이상의 제한은 없다”라고 발표하였고, 인도네시아 전 지역에 코로나19 관련한 제한조치를 전면 해제했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코로나19 대처에 대한 평가는 여러 측면이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이 마무리되고,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의 선도국가를 넘어 아시아의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새로운 2023년을 맞이하고 있다.

경제적 성장이 조코위 정부 성공의 기준이라면 2022년의 국내외 경제는 조코위에게 녹록치 않은 상황인 것은 자명하다.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 루피아 가치의 하락, 인플레이션 등의 요인은 인도네시아의 경제변동성을 지속적으로 높여갔다. 하지만 ‘새로운 일상’과 ‘뉴노멀’을 맞이하는 상황에서 내수 시장의 회복과 원자재 가격 급등은 자원 부국인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세를 추동하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 인도네시아 국민의 삶을 가장 극적으로 변화시키는 영역은 디지털 경제의 확산이다. 고젝과 그랩 등 슈퍼앱은 차량호출, 배송 및 물류, 음식배달, 메시지, 게임, 이커머스, 금융서비스, 결제까지 기능케 함으로써 인도네시아인의 삶을 변화시켰다. 또한 디지털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스타트업 기업은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여 인도네시아 경제 발전에 주요한 주체가 되어가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공급망 혼란과 인플레이션,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기후변화 등은 2022년 각국 정상들에게 주어진 과제였다. 각국

정상은 자국의 이익과 함께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 수행을 요구받았고, 이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외교는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G20 발리 정상회의는 글로벌 보건체계, 디지털 전환,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다. 주요 참가국 중 하나인 러시아의 푸틴이 회담에 참석하지 않았고 전쟁을 둘러싼 각국의 첨예한 입장으로 회의의 성공을 장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세계경제 둔화, 기후변화, 식량·에너지 위기, 지정학적 분쟁에 대한 대응과 공조 필요성을 담은 정상선언문이 채택되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2023년 양국 수교 50주년을 맞이한다. 아세안 지역과 동아시아 지역에서 자유시장 경제체제와 민주주의 정치체제가 공고하게 운영되고 있는 양국은 경제교류를 통해 더욱 두터워진 관계를 유지하였다. CEPA 협정의 발효로 양국의 상품시장 개방 수준은 확대될 것이며, 우리 기업들의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이 더욱 활발해 질 것이다.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외교적 수사가 양국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격상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인도네시아 경제의 성장과 국제 외교 무대에서의 역할과 위상 정립은 조코위가 2022년 한 해를 높은 지지율로 국정을 이끄는 동력이 되었다. 하지만 옴니버스법이 가지는 독소조항, 지방선거 과정에서 표출된 정치왕조의 문제, “경제 발전이 민주주의다”라는 언설 등은 민주주의에 대한 그의 지향과 방향성에 대해 여러 의문이 들게 한다. 조코위는 정치적 영역에 있어서 과감한 개혁을 원했던 국민의 열망과 달리 권위주의 유산을 이어받고 이와 적절한 타협을 하려는 경향성을 보인다. 즉 조코위에 대해 국민들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첫차가 되기를 희망했지만, 대통령 자신은 구시대의 막차가 되는 길을 택함으로써 경제적 성과와 함께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참고문헌

- 고영경. 2021. 『아세안 슈퍼앱 전쟁』. 서울: 페이지2북스.
- 강선주. 2022. “인도네시아 G20 정상회의: 지정학 위기와 글로벌 거너번스.” IFANS FOCUS. <https://www.ifans.go.kr/knda/ifans/kor/pblct/PblctView.do?csrfPreventionSalt=null&pblctDtaSn=14086&menuCl=P07&clCode=P07&koreanEngSe=KOR&pclCode=&chcodeId=&searchCondition=searchAll&searchKeyword=&pageIndex=1>(검색일: 2022.12.18)
- 권용숙. 2021. “옴니버스법(고용창출법) 개정에 따른 노동법의 변경 내역.” 법무법인지평. https://www.jipyong.com/kr/board/news_view.php?seq=10375(검색일: 2022.12.17)
- 박은하. 2022. “국제사회 존재감 키우는 조꼬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중재외교.” 『경향신문』. 7월 27일. <https://m.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2207271835001#c2b>(검색일: 2022.12.19)
- 사우다란다 따리간. 2022. “인도네시아 옴니버스법에 대한 조건부 위헌결정이 외국인 투자에 미치게 될 영향.” 『글로벌타임즈』. 1월 10일. <http://www.kgloba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858>(검색일: 2022.12.01)
- 서지원. 2021. “‘대국’인도네시아의 중견국 외교: ‘독립적, 적극적’ 외교의 추구.” 『동아연구』 40(1): 207-243.
- 신재혁·박희경. 2021. “인도네시아 2020: 전염병이 위협하는 민주주의와 경제.” 『동남아시아연구』 31(2): 1-38.
- 외교부. 2022. “[인도네시아] 2022년 경제전망.” 『국제경제동향』. 3월 11일. https://www.mofa.go.kr/www/brd/m_4049/view.do?seq=368870&page=1(검색일: 2023.01.02)

- 이지혁. 2020. “인도네시아 2019: 오른쪽으로의 선회?” 『동남아시아 연구』 30(2): 39-87.
- _____. 2022. “인도네시아 2021: 민주주의 틀에 담긴 권위주의 유산.” 『동남아시아연구』 32(1): 155-200.
- 통상추진위원회. 2020. “한·인니 CEPA 상세설명자료.” [https://www.fta.go.kr/webmodule/_PSD_FTA/id/2/%ED%95%9C-%EC%9D%B8%EB%8B%88%20CEPA%20%EC%83%81%EC%84%B8%EC%84%A4%EB%AA%85%EC%9E%90%EB%A3%8C\(%EC%B5%9C%EC%A2%85\).pdf](https://www.fta.go.kr/webmodule/_PSD_FTA/id/2/%ED%95%9C-%EC%9D%B8%EB%8B%88%20CEPA%20%EC%83%81%EC%84%B8%EC%84%A4%EB%AA%85%EC%9E%90%EB%A3%8C(%EC%B5%9C%EC%A2%85).pdf)(검색일: 2022.12.05)
- 한국동남아학회. 2021. 『4차 산업혁명시대 동남아시아 플랫폼 기업의 성장과 사회경제적 변화』.
- 한국무역협회. 2021.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시장의 현황.” 8월 9일. <https://www.kita.net/cmmrcInfo/rsrchReprt/ovseaMrktReprt/ovseaMrktReprtDetail.do?pageIndex=1&no=9170&classification=6>(검색일: 2022.12.04)
- _____. “한국무역협회K-stat-인도네시아.” https://stat.kita.net/stat/i/stat/asean/AseanWholeList.screen?ctr_cd=ID(검색일: 2023.01.09)
- Albert, Jehoshua Rapha & Azeem Marhendra Amedi. 2022. “Indonesia’s New Capital Authoritarianism.” *New Mandala* March 31. <https://www.newmandala.org/indonesias-new-capital-authoritarianism/>(검색일: 2022.12.01)
- Al-Fadhat, Faris. 2022. “Indonesia’s G20 Presidency: Neoliberal Policy and Authoritarian Tendencies.” *Australi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1-7.
- Almuttaqi, A. Ibrahim. 2020. “The Omnishambles of COVID-19

- Response in Indonesia.” *The Insights* 1(13): 1-7.
- Asian Development Bank. 2022. “Indonesia’s Economy Holding Up Well in 2022; Faces Headwinds in 2023.” September 21. <https://www.adb.org/news/indonesia-economy-holding-well-2022-faces-headwinds-2023-adb>(검색일: 2022.12.05)
- Cabinet Secretaria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2022. “President Jokowi Calls for Follow-up of G20 Summit.” November 28. <https://setkab.go.id/en/president-jokowi-calls-for-follow-up-of-g20-summit/>(검색일: 2022.12.22)
- Cbinsight. “The Complete list of Unicorn Companies.” <https://www.cbinsights.com/research-unicorn-companies>(검색일: 2023.01.04)
- Fealy, Greg. 2020. “Jokowi in the Covid-19 Era: Repressive Pluralism, Dynasticism and the Overbearing State.” *Bulletin of Indonesian Economic Studies* 56(3): 301-323.
- Freedom House. 2022. “Indonesia 2022 Report.” <https://freedomhouse.org/country/indonesia/freedom-world/2022>(검색일: 2022.12.05)
- GAIKINDO. 2022. “Indonesian Automobil Industry Data.” <https://www.gaikindo.or.id/en/indonesian-automobile-industry-data/>(검색일: 2022.12.23)
- GlobalData. 2022. “Indonesian e-Commerce Market to grow by 23.8% in 2022, Forecasts GlobalData.” February 18. <https://www.globaldata.com/media/banking/indonesian-e-commerce-market-grow-23-8-2022-forecasts-globaldata/>(검색일: 2022.12.14)
- Google • TEMASEK • Bain & Company 2021. “e-Conomy SEA 2021.”

- <https://economysea.withgoogle.com/home/>(검색일: 2022.12.05)
- _____. 2022. “e-Conomy SEA 2022.” <https://economysea.withgoogle.com/home/>(검색일: 2022.12.05)
- Hamid, Usman & Ary Hermawan. 2020. “Hermawan, Indonesia’s Omnibus Law is a bust for human rights.” *New Mandala* October 9.
<https://www.newmandala.org/indonesias-omnibus-law-is-a-bust-for-human-rights/>(검색일: 2022.12.15)
- Hill, Hal and Negara Siwage Dharma. 2019. *The Indonesia Economy in Transition, Policy Challenge is Jokowi era and beyond*. Singapore: ISEAS-Yusof Ishak Institute.
- Hutajulu, Matius Alfons. 2022. “Survei IPS: Elektabilitas Prabowo Tembus 30%, Ganjar 20% dan Anies 17%.” *detiknews* October 19. <https://news.detik.com/pemilu/d-6356769/survei-ips-elektabilitas-prabowo-tembus-30-ganjar-20-dan-anies-17> (검색일: 2022.11.24)
- Jati, Wasisto Raharjo. 2021. *The Situation of Declining Indonesian Democracy in 2021*. *THC Insights*, 27/09.
- Kompas. 2022a. “Survei Litbang Kompas: 55,1 Persen Pemilih Pemula Pertimbangkan Pilih Capres Pilihan Jokowi.” November 19. <https://nasional.kompas.com/read/2022/11/19/13413721/survei-litbang-kompas-551-persen-pemilih-pemula-pertimbangkan-pilih-capres>(검색일: 2022.11.22)
- _____. 2022b. “Survei Nama-nama Capres Potensial di 2024, Ganjar Nomor 1.” September 3. <https://www.kompas.com/tren/read/2022/09/03/103000165/survei-nama-nama-capres-potensial-di>

-2024-ganjar-nomor-1-?page=all(검색일: 2022.11.21)

- Mietzner, Marcus. 2020. "Populist Anti-Scientism, Religious Polarisation, and Institutionalised Corruption: How Indonesia's Democratic Decline Shaped Its COVID-19 Response." *Journal of Current Southeast Asian Affairs* 39(2): 227-249.
- Mujani, Saiful. & R. William Liddle. 2021. "Indonesia: Jokowi Sidelines Democracy." *Journal of Democracy*, 32(4): 72-86.
- Pangestu, Cheryl. 2020. "Jokowinomics: A New Developmentalism with Rising Skyscrapers and Sinking Indonesian Civil Rights Liberty." *Jurnal Sentris* 1(1): 1-14.
- Ramli, R, Rully. 2022. "Ini 5 Dompok Digital yang Paling Banyak Dipakai Warga RI, Siapa Juaranya?." KOMPAS July 21. <https://money.kompas.com/read/2022/07/21/203000626/ini-5-dompok-digital-yang-paling-banyak-dipakai-warga-ri-siapa-juaranya-?page=all>(검색일 2023.01.04)
- The Economist. 2022. "G20: The Economist Interviews Indonesia's President." 11월 21일. <https://www.youtube.com/watch?v=a7vMDrm8jLo>(검색일: 2022.11.15)
- Thoma, Vincent Fabian. 2021. "Jokowi Assures Investors After Court Ruling on Job Law." Jakarta Post. November 30. <https://www.thejakartapost.com/indonesia/2021/11/29/jokowi-assures-investors-after-court-ruling-on-jobs-law.html>(검색일: 2022.12.01)
- Warburton, Eve. 2016. "Jokowi and the new developmentalism." *Bulletin of Indonesian Economic Studies* 52(3): 297-320.
- Widjaja, Gunawan. 2022. "Indonesia's Omnibus Law in the International Context: Review of legal and human Rights

Publication Journals.” *Linguistics and Culture Review* 6:
64-76.

인터넷 자료

인도네시아 산업부 홈페이지. <http://kemenperin.go.id>

인도네시아 통계청 홈페이지. <http://bps.go.id>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홈페이지. <http://bi.go.id>

Lunicorn. <https://lunicorn.io>

Worldmeter. <https://www.worldometers.info/coronavirus/country/indonesia>

(2023.01.10. 투고, 2023.01.16. 심사, 2023.02.27. 게재확정)

<Abstract>

Indonesia 2022: The First Step to Rebounding

Jeong Hun Jeong
(Sogang University)

This paper looks at the major issues in Indonesia's political, economic, and foreign affairs in 2022 and analyzes their impacts on Indonesian society. President Joko Widodo (Jokowi) was criticized for inadequate dealing with the pandemic. Nevertheless, his approval rating remained high in 2022 thanks to economic growth and diplomatic achievements. The president's high approval rating have become a key variable in Indonesian politics as the presidential, parliamentary, and local elections will be held in 2024.

Indonesian economy was highly volatile throughout 2022 due to the decline of the Rupiah exchange rate and the instability of the international economy. However, a revitalized domestic consumption market and an increase in exports helped the economic growth rate remain above 5%.

Indonesia gained international attention with President Jokowi's adroit diplomacy in 2022. He made official visits to fifteen countries including Ukraine and Russia and held several summits to discuss critical issues like the pandemic, inflation, the war in Ukraine, and climate change. South Korea and Indonesia's relationship has improved and expanded beyond

the confines of the 'Special Strategic Partnership' as the economic exchanges showed notable growth in 2022.

Key Words: Indonesia, COVID-19, CEPA, Omnibus Law, Rupiah Exchange Rate, 2022 G20 Bali summit

